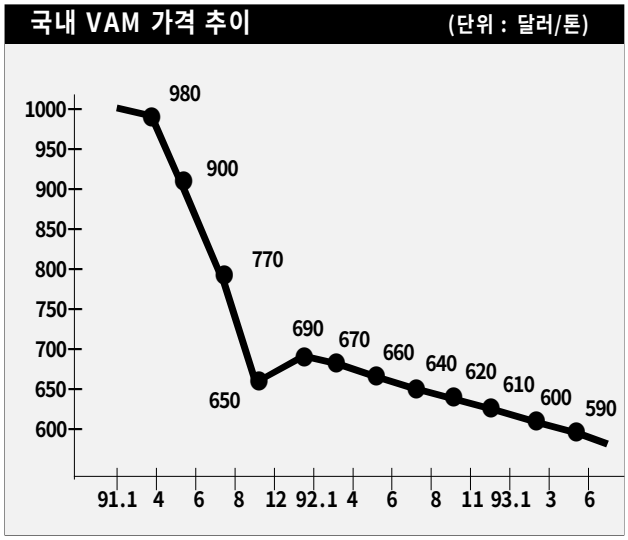
국내 VAM 수요 크게 증가

95년 삼성 BP공장 완공…Hoechst celanese와 격전 예고

VAM(Vinyl Acetate Monomer)의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VAM은 접착제 및 EVA(Ethyl Vinyl Acetate) 등의 원료로, 삼성BP화학이 92년4월 초산(Acetic Acid)17만톤 공장 가동 이후 계열화 차원에서 95년말 15만톤 규모의 VAM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국내 VAM 수요는 동양화학이 92년3월 PVA공장을 가동, VAM 예상 수요가 2만5000톤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험생산의 어려움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92년에는 7000톤만 사용했다. 동양화학은 93년 1만5000~2만톤을 사용, 92년보다 8000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양화학은 3만톤 규모의 EVA공장에서 VAM 5000톤을 사용하고 있고,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도 3만톤 규모 EVA공장에서 각각 2000톤씩을 사용하고 있다.



태영화학은 93년7월 울산 VAE공장을 완공할 예정으로, 연간 VAM 예상 수요량이 9000톤이며, 93년에는 1000톤정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니온고분자도 VAE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간 예상 수요량은 5000톤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VAM 수요는 지금까지 전량 수입해왔는데, Hoechst celanese가 70%이상의 시장을 점유, 가격을 주도해왔다.

95년 삼성BP화학의 VAM공장이 완공되면 H-C와 BP간의 가격경쟁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elanese는 가격인하로 국내 판매량을 고수하는데 주력,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인 후 BP와 가격조정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VAM 수입량을 보면, 91년 3만4000톤 중 Hoechst celanese에서 2만5000톤(73.5%), UCC 3000톤(9%), BP chemical 제품 2000톤(6%)을 각각 수입했다.

92년에는 4만3000톤 중 Hoechst celanese 2800톤, BP chemical 7000톤, UCC 3000톤, 롱프랑제품 1000톤을 각각 수입했다. BP chemical은 수입·판매권을 남덕물산에서 BP KOREA로 이양, 95년 VAM 공장 가동이전에 본격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93년 6월 VAM가격은 CIF기준 590달러로 93년 3/4분기 독일 Hoechst celanese PVA 폭발 사고 후 VAM 공급이 넘쳐 55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4/4분기경 섬유경기 호조에 힘입어 반등세로 접어들었으며 94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3/7/26>